

2007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21

믿는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축복받도록 운명지어짐

성경: 엡 1:3-6, 뱀전 1:2, 롬 8:29, 행 20:24, 딤후 4:5

- I. 믿는이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영원 과거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도록 심지어 영원 과거에 운명지어졌다.
- A.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경륜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의 로맨스이다. 성경의 시작에는 독신이신 한 하나님, ‘미혼이신’ 하나님이 있지만, 성경의 끝에는 ‘결혼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합병되신 하나님이신 새 예루살렘이 있다—엡 3:9, 딤후전 1:3-6, 램 31:3, 창 1:1, 26, 2:18, 사 54:5, 계 19:7-8, 21:2, 9-10.
- B. 영원의 때부터 삼일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심으로 영원에서 나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어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선민에게 ‘구애’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의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셨다—미 5:2, 요 3:16, 고후 5:14-15, 11:2.
1.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끌어당겼다”—램 31:3.
 2.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끌어당겼고”—호 11:4.
 3. “나를 끌어당기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야 1:4.
 4.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신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지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분이 훨씬 뛰어나시다—아 1:2, 4:10, 골 1:18 하, 참조 계 2:4.
- C.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회의를 여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대한 죽으심에 관해 결정을 내리셨다. 이것은 ‘미혼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선민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시어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합병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행 2:23, 뱀전 1:20, 계 13:8, 시 90:1-2, 요 1:1, 14, 29, 32, 42, 51, 고전 15:45 하, 계 4:5, 5:6, 21:3, 22, 엡 2:10.
- II.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믿는이들을 축복하셨다—엡 1:3-6.
- A. ‘창세 전’이란, 우주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함축한다—계 4:11, 요 1:3, 스후 12:1, 전 3:11, 롬 1:20, 시 19:1-2, 행 14:15-17, 17:23-31, 욥 38:1-4, 10:13, 엡 3:9, 전 1:3-9, 참조 사 40:31.
- B. 영원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었다—롬 8:29, 뱀전 1:2:

1. 미리 아신다는 것은 승인, 귀히 여김, 소유함의 의미를 포함한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인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소유하셨다—렘 1:5, 요 1:48, 참조 고전 8:1-3.
 2. 영원 과거에 우리는 ‘그분이 그분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그분의 큰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다—엡 1:9.
 3. 영원 과거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어, 그분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예정하셨다—롬 8:29.
 4.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 그분의 피가 뿌려졌다’—벧전 1:2.
- C.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려고—선택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본성에 있어서 그분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엡 1:4, 벧후 1:4, 참조 5:25-27.
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영역 밖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수 없다—1:4.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이유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렘 31:3, 살전 1:4.
 3.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을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세상에서 출신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한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고전 1:27-29
 4.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이 은혜로 택하신 긍휼때문이다—롬 9:11, 15-16, 21, 23, 11:4-6.
 5.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요 15:16.
 6.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압니다”—요 13:18, 참조 딤후 2:19.
 7.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롬 8:33.
- D.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갖도록—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그분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생동하여 영광 안에서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엡 1:5, 롬 8:10, 6, 11, 히 2:10-11.
1. 우리는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그분의 유업이 되어(엡 1:11, 18)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유업이신 하나님(14 절)을 상속받도록 미리 정해졌고 운명지어졌다.
 2.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주에 그분을 전시하는 그분의 걸작품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지시고 미리 안배되시고 미리 세워지셨다—고전 2:7-10, 엡 2:10.

III. 하나님이 영원 과거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뤄질 운명이 있다—렘 1:5, 행 20:24, 딤후 4:5.

- A.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표시해 두셨기 때문이다—행 13:48, 18:9-11.

- B.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표시해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를 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달아날 수 없다—욘 1:3, 렘 23:24, 시 139:1, 5-12, 16, 23.
 - C.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표시해 두셨으므로 우리는 다만 그분의 회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미처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후 5:13-15.
 - D. 각 믿는이에게는 그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길과 노정이 있다. 각 믿는이의 책임은 이 노정을 찾고, 가고, 마치는 것이다—행 20:24, 26:19, 딤후 4:7, 고전 9:24, 히 12:1-2.
 - E.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를 수행함으로 노정을 마치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신다—행 20:24, 사 45:15, 예 2:7, 4:14-16, 10:3, 느 2:10, 삼상 4:3, 21-22, 단 1:6-8, 계 2:7, 17, 3:20.
- IV. 우리는 분량을 정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또한 몸의 머리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몸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후 10:13, 15, 고전 12:18, 롬 12:2-3.**
- A. 자신의 분량을 벗어나 멋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결과는 평생 나병에 걸리는 것이다—대하 26:16-21.
 - B. 어떤 사람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는 음부의 문들을 여는 반역의 영이다—민 16:1-4, 8-11, 28-35, 참조 마 16:18.
 - C. 일꾼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일정한 일이 있다. 각 믿는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가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 당신이 당신의 올바른 위치에 서서, 올바른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다—행 20:24, 롬 1:5-19, 겔 1:1-3, 대상 4:10, 고전 12:18-19, 24.